

제37회 국가조찬기도회 연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하시듯이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방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몸으로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동포 교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조찬기도회를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외국인,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종교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간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침략과 지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도록 국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일본의 침탈에 맞서 나라를 되찾고자 국민들이 일어섰을 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일어섰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분연히 일어

셨습니다. 역시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용기이고 또한 거룩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관심과 안일에 빠져 있던 저를 일깨워서 양심에 눈뜨게 하고 옳은 일에 가담하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인도해 주신 분들도 역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 고마운 하나님의 명을 받으신 분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오늘 이 조찬기도회를 여셨으니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받은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또한 큰 축복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투쟁을 얘기했습니다만,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가 그랬듯이 그 투쟁은 또한 불가피했습니다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또한 인권을 짓밟는 독재정권도 없습니다. 명실공히 국민이 다스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해와 포용입니다. 대통령도 그러하겠습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다를 때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의 뜻이 다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으로 선거하고, 규칙으로 표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다음 심판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패자는 그때 가서 다시 심판을 받아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도리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도 충실히 따르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양심이 깨어 있고 제 용기가 꺾어지지 아니 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목사님들께서 인도해 주셨습시다만, 제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 편에 서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짧은 기간이나마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저에 대한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정치가 지역으로 분열돼서 서로 반목하고 해결책 없이 다툰 때, 제가 지역감정의 한 편에 서지 않고 상대와 함께 분열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데 대해서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이 많습니다. 이 갈등을 잘 풀어 나가고 또 반목을 잘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제게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아울러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우리나라만큼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큼 불평이 많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취동기가 너무나 높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이용하면 국가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또 지도자들이 잘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울 때 지금까지 크게 용기를 주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용기를 계속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